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1월 3일(금)

(음력 9월 20일)

Пятница

3 ноября 2023 г.

№ 42 (1205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토)은 러시아에서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한 행사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11월 4일은 국민 단결의 날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 단결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합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이 담대함과 능력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단결하고, 인내하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적 근성으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우리 선조들은 1612년에 침략자들로부터 모스크바를 해방시켰으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시 국권을 지켜냈고, 대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은 러시아의 서부전선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고, 후방전선에서는 최전선의 장병들을 지원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편에 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처럼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단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여러분과 동포들의 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단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예산계획 사회적 부문, 향후 3년간 유지

사할린주 정부가 2024년 및 계획기간인 2025년, 2026년에 지역 예산계획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모든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액이 책정됐다.

2024년 주 예산의 수입은 1,784억 루블리로 책정했고, 2025년에는 1,722억 루블리, 2026년에는 1,599루블리다. 지출액은 2024년에 2,174억 루블리, 기획기간인 2025년에는 1,970억 루블리, 2026년에는 1,833억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계획은 향후 적자 형식으로 계획이 축소될 전망이다. 적자 금액은 2024년도엔 389억 루블리, 2025년도에는 248억 루블리, 2026년도에는 234억 루블리다.

"지역 예산의 핵심 과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한 국가적 개발 목표 달성과 국민 앞에 지역 정부의 모든 의무를 성취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보존하고, 자아실현 및 재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사

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효율적인 근로와 디지털화로 전환된 기업 활동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할린 주두마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전과 같이 사회적 부문을 유지시키게 된다.

그중 의료, 교육, 주민 사회복지, 스포츠 방면은 우선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예산 책정액은 2024년에 1천만 루블리다."라고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말했다.

사할린주 주민 24만 5천 명 이상이 사회지원책의 수혜자가 된다. 다양한 영역의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29억 루블리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획 산업과 제반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자원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은 사할린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2026년 주예산에 대한 예산안은 공청회와 1차 발표 등 필수적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할린주, 국가기획으로 15km 도로 보수공사

올해 3분기 성과에 따라 사할린주 도로교통부가 중간 총결산을 내린 가운데 지역과 마을 구역에서 중요한 10개 시설물 대상 보수공사 작업이 완료됐다.

올해는 총 47km의 차량도로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도로공사 시행 기간은 2030년까지다.

올해는 네웰스크와 로파티노 마을 사이, 아 니와 진입 전 차량도로 구역, 주 도심 경계선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오하까지 도로 보수공사가 이뤄졌으며,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

다 대로와 크라이나야 거리, 베레즈니키의 젤료나야 거리, 네웰스크의 프리모르스카야 거리의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올 3분기 동안 우리가 설정한 모든 목표들의 거의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주요 시설들의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현재 도로건설업자들은 도로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에 따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의 노면을 표시하고, 도로 신호등을 세우며,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기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연말까지는 도로안전과 품질 요건에 따라 32km의 차량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사할린주 도로교통부 리 에두아르드 제1차관이 설명했다. 리스트웨니츠노예-오호

츠크예 차량도로 5km구간에 아스팔트 포장 완료되었다. 건설 시즈 끝무렵까지 주 국고 대출로 리스트웨니츠노예-오호츠크예 구간 차량도로 20km에 대한 추가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부 해안도로, 네웰스크-토마리-샤호츠크스크 공항 구간의 차량도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파루스노예 마을 근처 3.3km의 도로가 개보수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네웰스크에서 야스노모르스키까지의 2.8km의 도로는 보수공사 중이다.

도로공사 기술자들은 두 개 교량을 위한 보수공사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했다. 이는 네웰스크 지역 오펜키에서 비스트라야강을 건너며, 로파티노에서 아무르스카야 강을 건너가는 교량이다. 또한 토마리 지역 펜젠스코예 마을에 교량 건설도 마무리되고 있다.

단신

<러시아> 전시-포럼, 모스크바에서 열려

2023년 11월 4일(토)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이 모스크바의 '국민경제성'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러시아의 행정자치 지역들이 전시장을 연다. 국내 전 지역들의 전시회 일환으로 지역의 성공사례들, 명소들, 자부할 만한 동기들을 설명하게 된다.

사할린주 전시장은 투자의 매력, 관광 잠재력, 사할린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 환경 등 3가지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사할린 전시장 개장에 앞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방문했다.

사할린주 태평양 연어 어획량

2023년 10월 31일(화) 기준 사할린주 수산기업들의 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67,710.139톤이며, 한 주 동안 418,456톤을 어획했다. 각 어종별 어획량은 송어가 34,204.063톤, 연어 31,348.825톤, 흥연어(네르카)가 1,347.634톤, 은연어(키주츠)는 809.617톤이었다.

사할린주의 태평양 연어 어획량 결과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의 어획량은 2021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남 쿠릴 지역에서는 11월 30일까지 태평양 연어 조업이 계속된다.

사할린주, 일주일 간 코로나19와 폐렴 질환 증가 추세

10월 23일 - 29일 사할린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66명, 비병원성 폐렴은 88명으로 기록되었다. 이 두 수치 모두 지난 주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코로나19 감염률은 인구 1만 명에 43.5명으로 나타났고, 66명의 환자 중 2명꼴로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 환자들 가운데 병원성 급성호흡기 감염이 93.9%로 우세했고, 비병원성 폐렴 감염률은 6.1%이었으며, 이 중 70%가 경미한 증상을 겪었고, 1.5%가 중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에는 비병원성 폐렴 감염률이 증가한 가운데 비병원성 폐렴 환자 중 학생 환자 비율은 34.7% 였으나 감염된 환자 중 지역 주민 65세 이상의 고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동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지난 10월 2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 문화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날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이 센터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간단한 검진과 내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운동 요법도 익혔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 밥상도 차려졌다고 '코레이스키 텔레그라프' 텔레그램채널이 전했다.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는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사할린주한인협회와 1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맡은 관계자들은 한인들이 집중해 거주하는 사할린 지방들을 곧 찾아갈 계획이다. 현지 의료진의 지역 방문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운동요법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청년한인회가 실시하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사할린과 파라무쉬르 노선, 2024년에 첫 직항로 개설

2024년에 사할린과 파라무쉬르 노선 직항로가 개설된다. 이를 위해 세웨로쿠릴스크 - 노글리키-유즈노사할린스크 항공 노선이 편성될 전망이다. 파라무쉬르에서 이착륙 활주로는 현대적으로 보수되어 쿠릴열도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직항 항공편이 운영된다고 월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정부 실무회의에서 알렸다.

"북 쿠릴에서 교통편의 개선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헬리콥터나 배편을 전적으로 의존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악천후로 사할린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으며, 편도만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항공기 운항으로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파라무쉬르에서 사할린까지의 항공편 직항 노선 편성 과정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일임했다."고 월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얼마전에 페트로바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세웨로쿠릴스크행 노선의 항공기가 역사상 처음 운항됐다. 이는 파라무쉬르의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 건설 덕분에 가능했다. 항공기는 16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AN-28 기종이 운항했다. 새로운 활주로는 승객 수용 인원이 19명인 항공기 입항에 대한 일련의 제약을 거두어야 하고, 사할린 지역과 정기 항공편을 개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페트로바블롭스크-캄차트스키까지 운항 시간은 1.5배 단축된다.

"내년에는 세웨로쿠릴스크에서 노글리키를 경유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오는 노선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 다음 파라무쉬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직항으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착륙 활주로를 개건해야 한다. 개건 작업의 결과로 활주로의 길이가 확장된다."고 주 도로교통부 월레리 스피체코가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서 항공편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사할린의 항공사 '아브로라'를 기반으로 '통합 극동 항공사'가 설립되었고, 항공 노선망은 대부분이 접근이 어려운 연방 지구의 262개 지역으로 항공기가 운항하게 되었다.

(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주, 국민 단결의 날에 대규모 행사 진행

11월 4일(토),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수십 개 행사가 펼쳐진다.

규모 가장 큰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주요 행사로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앞마당에서 오전 11시에 공연이 열린다. 그에 앞서 러시아 정교회 앞에서 모인 시민들은 카잔 성모 아이콘을 들고 10시 45분에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앞마당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민족 예술단들이 참가하며, 또한 이곳에서 사할린주 민족문화 단체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러시아 민족들의 요리, 전통과 풍습, 공예가 소개된다.

가가린 시공원에서는 이날 14시부터 '모국!

고향! 단결!'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11월 4일 <사할린 마야크(등대)>콩쿠르의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열린다.

사할린의 박물관들과 도서관들은 이날 러시아 <예술의 밤>행사 일환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한다. 주 미술 박물관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린이 미술 학교 전시실에서 이날 15시부터 23시까지 창의적인 창작 공예교실, 견학, 영화상영, 예술에 관한 흥미진진한 대화, 아트 파티 등이 진행된다.

사할린 모든 지방들에서도 이날 많은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 저 모

<가을의 선물>박람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0월 28일(토) '가을의 선물' 농산물 직거래시장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지역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직거래시장에서는 유제품, 육류, 생선, 제빵 제품, 채소, 과일, 꿀, 달걀, 꿀, 제과류, 요리 재료 등의 장마당이 펼쳐져 판매되었고, 원에 농업인들은 자신의 밭에서 추수한 잉여 농작물을 판매했다.

오하에서 온 판매자 예브게니 유다쉬킨은 처음 한 시간 동안 수산물 250kg을 판매했다. 특히 판매 제품들 중에 냉동 생선과 뜨거운 훈제 생선이 인기를 끌었다. 홈스크 마을의 주민 넬리 마르코브제와는 꽃을 판매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가지고 왔다. 농산물 직거래시장에 홈스크의 주민들은 매해 참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제품으로 구매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2023년 마지막 농산물 박람회는 12월 9일(토) 가가린 시공원에서 열리며, 이날 '뿔메니(만두)의 날' 축제를 마무리하는 축하행사가 열린다.

Ярмарка «Дары осени»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Дары осени»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8 октября. На ней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ли купить товары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ярмар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молочная, мясная, рыбная и хлебобу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овощи и фрукты,

а также яйцо, мед, выпечка, кулинарные изделия. Садоводы реализовали излишки урожая со своих приусадебных участков.

Продавец из Охи Евгений Юдашкин в первые часы смог продать около 250 кг морепродуктов.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товаров пользовалась рыба холодного и горячего копчения.

А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ого села Чехова Нелли Марковцева привез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цветы. В ярмарке холмча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ежегодно, довольны покупательским спросом на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оследняя ярмарка 2023 года пройдет 9 декабр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Тогда же отпразднуют окончание фестиваля «День пельменя».

쿠릴열도에서 <학교 럭비> 기획 시작

쿠릴스크 지역에서 <학교 럭비> 스포츠 기획이 시작된 가운데 첫 경기가 10월28일(토) 체육보건 단지에서 열렸다고 '크라스니 마야크' 신문사가 전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이투루프에서는 이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태그 럭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통 럭비와는 달리 여기서는 일대일 경기가 적어진다. 선수는 공을 가지고 라인 뒤로 가야 하고, 공을 고정시켜 바닥에 누르고는 골대로 던져야 한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사할린의 학교팀들이 참가하는 '사할린' 럭비부가 있었는데 기획이 시작된 이후 '이투루프'라는 럭비부가 생겼다. 학교 럭비 경기에는 6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쿠릴스크 학교와 레이도워 학교에서 각각 2팀, 고라치에 클류치 마을과 고르니 마을 학교에서 1팀씩 출전했다.

첫 경기에서 쿠릴스크의 '쓰나미'럭비팀이 '이투루프' 럭비팀을 이겨 우승했고, 고르니 마을 학교팀 '볼칸'이 2위, 레이도워 마을 학교팀 '올림피크(올림피아인)'가 3위를 차지했다.

태그 럭비는 1년 내내 진행된다.

На Курилах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Регби в школу»

Спортивный проект «Регби в школу» запустили в Курильске. Первые игры состоялись в местном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28 октября, сообщило издание «Красный мая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 Итурупе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 тэг-регби. В отличие от классического регби здесь минимум единоборств. Игроку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сти мяч за линию, а затем зафиксировать его, прижав к полу, и сделать бросок.

Ране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 только дивизион — «Сахалин», где выступают школьные команды острова. После старта проекта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 «Итуруп». В регбийной школьной лиге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шесть команд. По две представили Курильская и Рейдовская школы, еще по одной собра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ел Горячие Ключи и Горного.

Победу в первом туре дивизиона «Итуруп» одержала команда «Цунами» из Курильска, серебро взяла «Вулкан» из Горного, бронзу — «Олимпийцы» из Рейдов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эг-регби будут идт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러시아의 청소년 재능인> 대회에 사할린 학생들 초대

<러시아의 청소년 재능인> 전국 미술경연대회에 9세 - 18세의 사할린 학생들을 초대한다. 작품 접수는 11월 12일까지라고 '사할린 섬'체호브 책 문학미술박물관이 전했다. 경연은 그림, 회화, 도형 디자인(구성) 3 부문에서 경쟁을 치르는 가운데 9세 - 11세, 12세 - 13세, 14세 - 15세, 16세 - 18세 4개 연령대별로 진행된다.

(8면에 계속)

2023년 러시아 한국어 교육 워크숍 개최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2023년 10월 25일(수) - 27일(금)까지 2023년 러시아 한국어 교육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러시아한국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원장 장인영)이 주최하고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가 주관한 행사이다.

러시아 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확산을 위한 한국어 교육 행사로서 러시아의 한국어 교원과 교육행정가의 현지 연수이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카잔 아담나르 제2 언어학교 방문, 한국 유학 특강, 한국어 교수법 시연, 한국문학 특강, 한국역사 교육방법 시연, 종이문화재단 파견 강사의 한지공예 만들기 실습, 러시아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 정책, 학교별 사례발표, 러시아 한국교육원장 원장협의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원



장 장인영, 부원장 이세연), 사할린 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원장 정해운), 하바롭스크 교육원(원장 이재현)을 비롯하여, 모스크바, 페름, 첼랴빈스크, 우파, 체복사리, 불고그라드, 로스토프나도누, 엘리스타, 카잔 등지의 한국어 교사 47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고영철 교수는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드리고, 특히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카잔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며, 이제는 한국어를 도구로 한국역사, 문화, 경제 분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행사를 개최한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장인영 원장은 축사를 통해 "워크숍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어 채택학교와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교들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10월 25일(수) 10시에는 카잔의 한국어 채택학교인 아담나

르 제2 언어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학교시설을 탐방하였고, 아울러 이 학교 '삼수찌노프 아이다르 일다로비치' 교장으로부터 2024년 9월 학기부터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여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긍정적 결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11시에는 카잔연방대 알렉산드롭스키 홀에서 개최된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주관 '한국 유학' 특강에서 정인영 원장과 이세연 부원장은 "한국 교육의 장점과 유학생에 대한 혜택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홍보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의 26일과 27일에는 한국 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이 파견한 김준혁 북폴딩아트협회의 북주머니, 왕관, 청사초롱 만들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를 배워서 러시아 중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전수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있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겨우살이 / 박자경

나의 젖을 빨면서 너는 목이 메이나보다 사는 게 별건가

내 젖은 언제나 달콤하지 않았으나 가끔 내게도 너는 꿀물 같은 말을 한다 내 정수리 해골을 빨면서도 너는 내게 묻는다 행복하지? 우듬지 내 몸 한 권을 빌려 목숨 키우고 겨우 살면서도 팔랑거리지 않으며 용케도 둥글게 따리를 틀고 앉아, 오가는 새들의 그림자도 쉬어가지 못하게 가시를 고슴도치처럼 세운다 햇빛에 녹아내린 상고대 눈물을 겨우겨우 받아 마시며 몸을 세우고 있는 내 몸에 달라붙어 살면서 나더러 죽지 말라고 애원한다 너는 나 때문에 겨우 살고 나는 너 때문에 그나마, 겨우 산다.

"돌이켜보니 코로나 터지고 아주 요리에 관심이 많아진 셈. 뭐,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고마운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건만, 뒤늦게나마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틈만 나면 배달 음식으로



때웠죠. 메뉴를 바꿔 주문해도 아무래도 반복되다 보니 점점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팔 걷어 부치고 유튜브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제법 좋아하더라고요. 바다 낚시로 잡은 선어회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수육이며 녹두 삼계탕, 일본식 규동, 고든 램지도 깜빡 울고 갈 부채살 스테이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레어면 레어, 미디움이면 미디움, 이제는 제법 후라이팬이 손에 익은 느낌입니다. 맑은 연어 서더리탕, 청어 조림은 어땡고요. 나중에는 제 뽕(feel)에 못 이겨 바닷가에서 예쁜 자갈들을 접시에 깔고, 그 밑에 드라이 아이스를 깔아 신비스러운 조금은 조잡스러운 데코를 과감하게 펼치며 아주 고급 힙핏 못지 않게 저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늘 그렇듯 이제 '어느 날'이 등장할 차례지요. 그래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지만 쉽진 않을 거라고 도발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 역시 이제껏 처음 들어보는 나물 이름이었는데요. '논개승마'. 어떻게 그 나물을 알게 됐냐고 일단 물었죠. 마이클 잭슨이 한국 공연 때 이 논개승마 비빔밥을 먹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들 녀석은 거의 마이클 잭슨에 미쳐있거든요. 호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떻게든 그 나물을 구해 비빔밥을 그것도 더 맛있게 해주겠노라, 저 역시 선언을 했습니다. 인근 시장에 가도, 마트에 가도 없더라고요. 의외로 파는 것만 다들 파시던데, 아무튼.

구하는 건 의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도움으로 재료를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싱싱한 걸로. 살짝 삶고 다른 나물들과 함께 참기름이며 고추장 잔뜩 넣고 무사히 요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억입니다. 아, 참이 꿀꺽꿀꺽 넘어가네, 논개승마,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빌리 진'의 문워크를 마이클 잭슨처럼 출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멀리 온 거겠지요, 죄송.

이 시는 담양의 시인 김규성 선생님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살이는 약초지요. 저는 몇 번 겨우살이 차를 접했던만 그 맛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네요. 기생 식물인데, 어쩐지 저는 동충하초같은 버섯이 떠오릅니다. 자연은 나뭇잎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부대끼며 가혹한 시절을 이겨냅니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차가 버섯(гриб чага) 처럼, 유즈니에서 어쩌나 단단한지 덩어리째 받은 차가버섯을 물에 불려 자갈을 맞대고 갈아도 갈아도 그 가루가 몇 그램 얻어지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차가버섯도 한 잔, 겨우살이 차도 한 잔 이렇게 이 차 저 차를 훌쩍훌쩍 음미하고픈, 체호브를 다시 읽고 싶어지는 벌써 그리고 또 어느덧 겨울의 초입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모스크바 인근의 이춘봉 싸부님!"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안수학 사범, 태권도 9단증 받아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주 태권도연맹(국제 태권도연맹) 회장이며, 러시아 당수도 협회 임원인 안수학 태권도 사범이(사)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의 초청으로 대구시를 방문했다. 이날 남인도 총재는 안수학 사범에게 태권도 9단증과 최고 무예 명인 인증서를 수여했다.



왼쪽으로부터: 남인도 총재, 천영곤 회장, 안수학 회장, 이상탁 경무관.

태권도 및 당수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곤 회장은 명예선수 8단증을 받았다.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는 인사말을 하면서 "러시아 당수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 이상탁(당수도 10단)씨에게도 "대한민국 전통무예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본사 기자)

(사진: 국제당수도 연맹 제공)

김 이고리, 청각장애인 태권도 러시아 챔피언 3연패 달성

이미 전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청각 장애인 태권도 러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다게스탄 공화국 등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모였다. 사할린주의 유일한 대표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김 이고리 태권도 선수가 출전해 다시 한 번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다.



김 이고리 선수는 체급별 58kg 부문 '겨루기' 종목에 출전했다. 그의 코치 김 제니스는 김 이고리 선수가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한다. 한편 사할린 그레코로만 레슬링 학교의 한 선수로 김 이고리는 세 번 겨루기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1위를 차지한 사할린 선수는 러시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선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는 소치의 훈련 캠프에 있다. 이는 2024년 비슈케크에서 개최될 세계적 경기에 출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집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두 배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리는 중압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상위권을 차지하며 러시아 대표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라고 사할린주 태권도 대표팀 감독인 김 제니스 러시아 명예 코치가 밝혔다.

이고리는 제니스 김 사범의 지도 아래 15년 넘게 태권도를 수련해 온 선수이다. 김 제니스에 따르면 이고리는 결단력과 높은 도덕적, 의지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상품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Живопись мунинхва

Ярк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напряжение прощальных красок осени в пейзаже Пак Хен Бо «Закат в горах» передано через модернистскую по характеру ломку традиций композиционного построения, при которой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е планы теснят друг друга, живописная пластика мазка упрощает и уплощает изображение природных форм и приобретает декоративное звучание.

Создавая свою «современную вариацию истинно корейской эстетики», Пак Хен Бо прибегает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тилистики «бытовой» народной живописи минхва. Именно в 1970-е годы остро стояла проблема наследования тради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Интерес к наро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в том числе к народной живописи, достиг в это время своего апогея. Именно черты народной примитивной эстетики стали «авторскими знаками» в творчестве Пак Хен Бо.



Пак Хен Бо (1935 г.р.)
Закат в горах.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водяные краски. 66x76;
74x89,5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г.
КП-10230 Ж/в-1434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Поддержка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28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о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здоровья и досуга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был проведен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звития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ФК, осмотр терапевта, а также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денное время за вкусным обедом.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с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ой будут посещены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 Программ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Южносахалинец Игорь Ким стал трехкратным чемпионом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в дисциплине тхэквондо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в дисциплине тхэквондо состоял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Престиж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бра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рядка 150 участников из 11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состязаниях представля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Игорь Ким, который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 свой чемпионский статус.

Спортсмен выступал в дисциплине «поединок»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58 кг. Как рассказал тренер южносахалинца Денис Ким, победа была уверенной. Воспитанник сахалинской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выиграл три поединка и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пьедестале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ровному спортсмену войти в сборную страны.

Сейчас у южносахалинца плотный график. Игорь Ким находится на спортивных сборах в Сочи — это первый этап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к мировому турниру,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Бишкеке в 2024 году.

- Дома выступ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й вдвойне. Тем не менее Игорь справился с волнением. Он был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шел под сильным номером один по жеребьевке и уверенно завоевал место в сборной команде России,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хэквондо,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России Денис Ки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ениса Кима спортсмен занимается тхэквондо более 15 лет. По словам наставника, южносахалинец обладает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ью и высокими морально-волевыми качествами, что, несомнен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достижению подоб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Источник: <http://tia-ostrova.ru>



Фестиваль почтения предков в Тэджо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Тэджон – особое место для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коре сарам. Здесь находи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где захоронены герои,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о кладбище с большими почестями был перенесен прах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 До.

Ежегодно в Тэджоне проводится фестиваль почтения предков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На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собираются гости со всей Кореи и зарубежья,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редков и, возможно, найти нов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коре сарам из Казахстана, получив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родным истокам.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ъехались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городов Кореи, бизнесмены, артисты и журналисты. Первым посетили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торый хранит в себе историю стано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Здесь в хронолог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сопровождающиеся макетами древних государств. Нас окружали реалистичные сцены боев и звуки выстрелов. А в конце слышалось долгожданное, будоражащее «Мансе!». Гост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становления Кореи,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ей и судьбам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музее есть отдельная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генералу Хон Бом До, которая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историю его интересн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елегкой судьбы. Ветеран нашей газеты Ри Ден Хи рассказала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из его жизни:

- Генерал Хон был добровольцем самой первой битвы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оккупантов в 1920 году. В той битве он уничтожил более 300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удучи 70-летним стариком, он рвался на фронт. Однако его не пустили на войну, а наняли охранником в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 те годы людям не хватало еды и одежды. Однажды под покровом ночи в театр проникли четверо воров, видимо хотели украсть дорогие ткани. Тогда Хон Бом До, позабыв о своем возрасте, пытался их остановить. В драке с бандитами генерал получил много увечий, от которых в последствии скончался.

Затем казахста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Тэджона,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внучка и правнучка Хван Ун Дэна –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участника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Его прах тоже был репатрирован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Хван Ун Ден занимал ряд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олжностей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ел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вещ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нучка великого героя Лариса Хван выросла на руках у любящего деда, который никогда не рассказывал о своем прошлом. Только к концу жизни потомки узнали о его героизме.

Фестиваль, выставка «Коре ильбо», семейный парад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стретил гостей яркой шоу-программой, традиционными и современными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Самобы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оставили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у зрителя. Каждый день фестиваля сопровождался концертами 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100-летию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К столику с интересом подходили люди, когда-то знавшие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и. Тогда газета еще называлась «Ленин кичи». Гости разбирали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Многих удивляло, что они выходят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далеком Казахстане.

Делегация из Казахстана, выделяющаяся голубыми шарфиками с золотист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узорами, открыла «Семейный парад».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выходили с табличками, на которых написаны их фамилии и род. Некоторые гости смогли найти нов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овое настоящее

Сегодня Южная Корея у всех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высо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этой поездке нам удалось увидеть и даже испытать на себе новые разработ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В музе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ы увидели, как использую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пластической хирургии. ИИ детально генерирует облик человека и показывает, каким будет лицо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Все эндоскоп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теперь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с помощью одной таблетки. Капсула со встроенной камерой принимается внутрь, проходит по всему пищеводу и заменяет болезненные процедуры. Она показывает состояние внутренних органов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и выявляет патологии.

Также гости смогли посидеть в автомобиле, который ездит без водителя, и наблюдали, как робот-художник за считанные секунды рисует портрет в стиле Винсента Ван Гога.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нас впечатлил телефон для глухих людей. Телефонная трубка прикладывается не к уху, а ко лбу. Волны посылают сигнал через мозговую кору. Кажется, что голос собеседник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черепу. Заткнув уши, каждый попробовал «побеседовать головой».

Южное море. Йосу

Город Йосу – самая южная точка Кореи. Промышленный городок окружает Южное море. Здесь находитс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Йосу Кванъян. А в 2012 году в Йосу прошла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ЭКСПО.

Наша делегация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орта Йосу-Кванъян и сталелитейную компанию POSCO.

С 17-го этажа здания в виде большого корабля нам открылся панорамный вид на порт Йосу. Громоздкие краны загружали контейнеры на товарные корабли, чтобы отправить грузы заказчикам через Южное море.

В компании POSCO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что в нашей делегации есть люд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 от 18 до 70 лет. Оказывается, готовясь к встрече, в компании заранее узнали дни рождения гостей и рассказали свою историю, опираясь на эти даты.

Экскурсию дополнила незабываемая поездка на катере по Южному морю.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судне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прекрасным звучанием домбры и песнями род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Диана СО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айт «Коре Ильбо»)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Ашхабаде, столице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остоялся 16-й форум «Корея-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бсуждались пути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К и пятью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Делегации стран-участниц форума возглавляли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Чи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 Рашид Мередов, Казахстана - Мурат Нуртлеу, Кыргызстана - Жээнбек Кулубаев, Таджикистана - Сироджиддин Мухриддин и Узбекистана - Бахтиёр Саидов. Выступая на форуме,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призвал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над расшир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силь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во время глобального кризиса», предложив изучить новые двигатели роста. Пак Чин пообещал, что РК возьмёт на себя ведущую роль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чтобы помочь сократить цифровой разры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Он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единого ответа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а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ризвал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Сеула.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Пак Чин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воими коллегами из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нёс визит в резиденцию президенту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ердару Бердымухамедову.

В Казахстане откроется мемориал Хон Бом До

3 ноября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городе Кызылорда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емориала борц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Хон Бом Д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К, он установлен на месте могилы Хон Бом До. В 2021 году останки героя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на родину.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Юн Чжон Чж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ызылорды,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Алматы,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захстана. Хон Бом До родился в Пхеньяне в 1868 году. В 1907 году 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артизанскому движению Ыйбён, которое развернулось тогд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1919 году Хон Бом До стал одним из командующих Арм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которая боролась с японскими захватчиками. В 1921 году он бежал на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пасаясь от преследования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заторов. В 1937 году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Хон Бом До был выслан в Казахстан, жил в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умер в 1943 году в 75-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81,3%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пенсионную реформу

81,3%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в июле-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по заказ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о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среди двух тысяч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59 лет. 35,5% опрошенных не исключили вероятности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Указываются и такие причины как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будущие поколения. 3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готовы платить больше взносов, чтобы пенсия увеличилась. Желание получать меньше при условии снижения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выразили 23,4%. Среди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пенсионной реформы 35,7%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разить мнени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считают сумму пенсии недостаточно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уровнем пенсионных взносо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мнения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лишь 20,6%. 40,6% опрошенных не доверяют управлению пенсионным фондом.

Экспорт кимчи может достичь нового рекорда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традиционных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кимчи составил 118 млн 865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0,6%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ём поставок вырос на 8,1%, составив 33.828 тонн. Во многом рост спроса на кимчи в мире вызван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имиджа полезного для здоровья продукта, повышающего иммунитет, что стало решающим фактором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ле ослабл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спорт кимчи сократился на 11,9%. В этом году снова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показател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 итогам года будет превышен рекорд 2021 года. Возможно, впервые за два года в РК будет отмечен про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в сегменте кимчи. Связано это с те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слабление спроса в пандемию, теперь кимчи укрепляет имидж главного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K-Food. Популярность кимчи растёт в США и Европе.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поставки продукта в США выросли на 41,2%, а в Нидерланды - на 15,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ри этом крупнейшим импортёром кимчи является Япония, поставки в которую выросли на 3,1%, составив 48 млн 772 тыс. долларов.

(RKI)

Том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Ульсан активизируют рег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Ульсан состоя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ководства этого города и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консультаций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пути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Ульсан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24 октября. Делегация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ехала в Ульсан для участия в 14-й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 Ассоци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РАССВА). В ходе консультаций, где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исутствов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мэр Ульсана Ким Ду Гё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ути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ключая культуру, спорт, туризм и другие.

В докумен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Томская область и

Ульсан являются городами-побратимами с 2003 года и осуществляют регуляр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контакты. Визит офици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в Ульсан состоялся впервые с 2014 года.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приезд делегации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деемся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отношений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шими регионами", - сказал мэр Ульсана Кима Ду Гом.

14-я 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Ассоци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завершила работу 26 октября, продлившись три дня. Она проходила под лозунгом "Наше совместное будущее в ново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ообще в АРАССВА входят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регионов из шести стран - России, Китая, Японии, Юж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IT-гигант Какао переживает сильнейший кризис из-за аферы с акциями

Ныне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а также основателю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IT-компаний Южной Кореи Какао Group грозят тюремные сроки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манипуляции фондовым рынком. Э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крупнейшего кризиса для гиганта IT-индустрии страны с момента его создани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оекты развития компании оказались заблокированы.

Как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напряженной работы специаль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составленн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ции, прокуратуры и финансовых экспер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ачала допросы и аресты руководства Какао. Бизнесменов подозревают в том, что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они предприняли шаги,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к росту стоимости акций изв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индустрии развлечений SM Entertainment.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ее продажу компании HYBE. Отметим, что HYBE является агентством, которое отвечает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пулярнейшей на планете k-pop группы BTS. Какао в итоге смогла купить SM Entertainment, но уже в апреле, в связи с совершенной сделкой, было начат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удя по событиям последних дней, следователи собрали достаточную доказательную базу и перешли к акт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Так, примерно неделю назад был арестован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Какао Пэ Чжэ Хюн. Это немедленно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программы инвестиций Какао в новые сферы и направления оказались как минимум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ов, особенно пострадали на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которые Какао Group собиралась вложить очень солидные средства.

После ареста Пэ Служба финансового надзора РК

вызвала на допрос основателя группы Ким Бом Су, нынешн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группы Хон Ын Тхэка и главу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акао Entertainment Ким Сон Су. Все они также подозреваются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манипуляциям на фондовом рынке.

Да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лучило большую огласку. Какао, наряду с другим гигантом отрасли Naver,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и влиятельных IT-корпора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Будучи созданной в 2006 году, она быстро выросла, чему во многом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мессенджера КакаоTalk. Очень быстро Какао превратилась именно в конгломерат,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но с применением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этой связи аресты и допросы среди руководства IT-гиганта не могли не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я. Судя по всему, конгломерат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полосу своего самого серьезного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кризиса, и неясно, чем вс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Глава Службы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РК Ли Бок Хюн указал, что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т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и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во всем тщательно разобраться и наказать тех, кто будет уличен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ов. Ли дал понять, что это каса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онгломерата. Вполне может дойти до того, что покупка Какао Group компанией SM Entertainment будет признана незаконной и аннулирована. Какао также грозит и принудительная продажа ее пакета акций в интернет-банке КакаоBank.

В самой группе Какао заявили лишь, что намерены полность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и ответить на все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ко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Корейский бы выучил

Сеул, 28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Доступность теста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а рубежом (ТОPIK) для лиц, не являющихся нос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двоится до восьми тестовых сесси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явило об этом плане в рамках своей более широкой стратегии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в увеличении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жалобами на ограниченный график тестирования за рубежом.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2024 год,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назнач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вять тестовых сессий, в том числе восемь,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за рубежом. На 2023 год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только четыре зарубежных тестовых сессии. ТОPIK, введенный в 1997 году, используется лицами, не являющимися нос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ы ил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этом году ежегодное число слушателей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о отметку в 400 000 человек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го глобального интереса к Южной Корее и ее язык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тестир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Вьетнам, Индонезия и Индия, где спрос на обуч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стет»,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 Ведом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бумаж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в более чем 90 странах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 интернет-тестирования в 10 странах».

В метро можно купить даже фрукты

Сеул, 28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руктовые лавки начинают появляться на станциях метро по всему Сеулу, часто продавая меньшие порции для одного пешеходного пассажира.

По данным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фруктовые лавки открылись примерно на 20 станциях метро, включая Бангбэ, Халджон, Новон, Омокге, Саданг и Сонсу, обычно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местах рядом с турникетами или эскалаторами, где их легко заметить пассажирам, желающим купить упаковку из двух бананов, четвертинку арбуза или другие небольшие порции за 3000-5000 вон (US\$1 = W1 350). После 17:00 цены снижаются, если товары не распродаются.

Один 31-летний офисный работник сказал: «Фрукты, которые я вижу в метро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свежие и по адекватной цене, так что мне, возможно, больше не придется ходить в продуктовый магазин за фруктами». Владелец одного подземного фруктового магазина сказал: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за торговые площади на станциях метро в четыре-пять раз выше, чем на уровне земли, но вы получаете постоянный поток покупател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годы». Владелец другого магазина сказал: «Магазины на больших станциях метро гораздо прибыльнее, чем магазины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в центре Сеула. Я планирую открыть еще».

Но основным фактором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нижается. По данным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з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торговых площадей упала с 111 268 вон в 2019 году до всего 94 974 во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магазины закрыли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15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дорог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подве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рёх кварталов текущего года. Уже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на 10 объект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Всего за этот год должн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47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лены до 2030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участки автодорог перед въездом в Аниву, между Невельском и селом Лопатино, а также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границ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роме того, завершён ремонт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и улицы Крайн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еленой – в Березняках, Приморской – в Невельске.

– По итогам трёх кварталов этого года, могу отметить, что почти вс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мы перед собой поставили, достигнуты. На большинстве объектов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уже завершены. Сейчас дорожники выполняют треб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ые к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Это нанесение разметки, установка сигнальных столбиков, освещения и другие виды раб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жидаем к концу года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еще 32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дорог,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ысоким требованиям качеств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Эдуард Р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5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Транспортная артерия важн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оэтому благодаря выделенному области казначейскому кредиту к концу стро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удас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полнить работы еще на 20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Охотское.

– Рады новой дороге! Хорошо, что появились тротуары, которых раньше не было. Значит власти позабот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об автомобилистах, но и о пешеходах,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Анна Евгеньев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автодороге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Здесь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3,3 километра на участке в Парусном.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монт 2,8 километра от Невельска до Ясноморского.

– Проводим ремонт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 мостов,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неотложного ремонта. Параллельно выявляются дефекты и на других мостовых сооружения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ремонта, – рассказал Андрей Яхменев,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и ремонтом мостов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Дорожники вышли на финальную стадию ремонта на двух мостовых сооружениях: через реку Быструю в Огоньках и через Амурскую в Лопатино,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Такж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ста в Пензе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на восьмикилометровом участке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инегорск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грунтовку здесь сменит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 В начале года мы заявляли 19 километров, однако нарастили объемы и к концу года сдадим 47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Вадим Думанский.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у,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емонту дорог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деляется приоритетное внимание. Решение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ы расход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ыполняются рекордные объемы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огут, обратившись в любой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 каждым соискателе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акрепля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мощник.

Специалист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по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составить резюме, проконсультирует о вакансиях и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соискателя на всех этапа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Мы индивидуально подходим к каждому случаю. Вакансии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подбираю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еабилитации инвалида. Есл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искатели проходят переобучение или приобретают н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овалева.

Работу с людьми, у которых есть ограничение по здоровью, в регионе строя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урсом, который зад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что общество и государство больше не замалчивают проблемы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не пытаются от них отвернуться. Более того, сейчас им уделяется всё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держку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еобходимо выстраивать с учетом их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потребностей.

Инвалид третьей группы Дарья из Курильска обра-

тилась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за помощью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ли курильчанк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и подобрали подходящую вакансию. Дарья прошл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успешно трудится в детском саду.

–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мне помогли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В детском саду чудесный коллектив, мне нравится работать с детьми. Теперь у меня есть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не только приносит заработок, но и нравится мне самой, – поделилась Дарья.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не только гражданам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о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 готовым принять на работу человека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В любом кадровом центре работодатель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аренды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оборудования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инвалида.

Кроме того,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мер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создающих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инвалидов. Для них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убсидия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по оплате труда работника и его наставника, а также 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оснащение)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человека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Организатора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вручили наград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тех, кто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или помогал дирекции.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пециалисты департамент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ег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 31 человек.

– Форум «ОстроVa» заявляет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сю стран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популярным, и сюда приезжают молодые люди, чтобы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и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Также форум открывает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чтобы разработа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и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ые гранты. Уровень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м. В качестве гостей к нам прибыли федер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а такж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ам – организаторам –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ы были одной командой, благодаря вам все получилось,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Анастасия Бухтиярова –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реализации форумной кампании и развити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олодежном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Девушка с большим теплом вспоминает форум,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риходилось не спать ночами, не есть и решать оперативно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 Ты устаешь, переживаешь, ожидаешь, но получаешь невероят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результата. Иногда кажется, что что-то не получится, идет не по плану, но благодаря команде, с которой мы работали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все сложилось. С трепетом ждем следующий год и форум «ОстроVa», – поделилась Анастасия.

Директо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обра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команда, которой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мероприят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о и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дни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 открыт Больш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шатер. Там проход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лекции, кинопоказы, встречи с олимпийскими чемпионами.

– Уже сейчас мы думаем над формато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ужно будет удивлять, сделать программу так, чтобы угодить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и запросам.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команде и вс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нам помогали. Без них у нас бы не получилось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ринимало участи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лонте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Им также будут вру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собрал на Сахалине 5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от 14 до 35 лет из 88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нкурс составил рекордные 16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на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Росмолодежи.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гранта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Более 4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ил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оказываемо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омощи.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е 4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получили своевременное лечени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амых сложных и уника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современных достижениях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Островные пациент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такую помощь не только в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ах, но и в обл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Ежегодно объемы таких операций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ваются –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почти на треть.

В перечен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ходит хирург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сложных нарушений ритма сердца. В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рачи проводят до 4 таких операций в день. За год эта цифра превышает 500. Пациенты попадают сюда с нарушениями двух типов – брадиаритмией – редким ритмом и, наоборот, слишком частым – тахикардией.

– В отделение закуплено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ходят регулярное обучение. Для этого в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аритмолог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 в Томске, Новосибирске,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 нас появился также св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центр, где мы с коллегами делимся интерес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лечения нарушений ритма сердца Александр Богачевский.

К выписке из отделения готовится Вячеслав Пьензин, котором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овели сложную операцию и избавили сразу от двух клинических проявлений – аритмии и трепетания предсердия. Патолог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беспокоил мужчину более 20 лет.

– До этого мне уже проводили такую операцию на материке, а на днях островной врач всего за час совершил необходимые манипуляции. Мне сделали местную анестезию – я ничего не чувствовал, но хирург комментировал каждый шаг и постоянно интересовался самочувствием.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коллектив здесь молодой, но при этом опытный. Поэтому на операцию я шёл без страха, – поделился Вячесла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также в учреждениях Охи и Тымовского. Туда направляются жители ближайших районов.

–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и получи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помощь могут вс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у которых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дицинские показания.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стоянно повышают свои компетенции, парк оборудования обно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и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Мы планируем и дальше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оказываемой помощи, чтобы дать нашим пациент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леч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а, – доб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Мещерягин.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процент проведённых операц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ся на 30 процентов.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жител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помощь по 18 профилям – педиатрии, онкологии, дерматовенерологии, абдоминальной хирургии, акушерству и гинекологии,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и, гематологии, нейрохирургии, неонатологии,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и, офтальмологии, ревматологи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урологии, эндокринологии, челюстно-лицевой хирургии.

15 судов утилиз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удалению затонувшего корабля в акватории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Невельск. Специалисты вытянули на берег и сдали останки военного тральщика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ереработки. Это 15-е судно, утилизированное в регионе в этом году.

Затонувшее судно находилось в морской акватории, прилегающей к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Невельска, откуда открывается вид на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Объект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туристов.

–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чистки бух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затонувших кораблей еще в 2014 году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уда, пролежавшие десятки лет в морских акваториях нашей страны и региона, не только портят эстетический вид, но и наносят вред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препятствуют безопасному судоходству.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их утилизации,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Рейдовому тральщику более 50 лет. Судно весом более 50 тонн предназначалось для поиска и уничтожения мин.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с некотор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так как судно довольно габаритное и при вытягивании уперлось в подводную скалу.

– У каждого такого судна есть история, когда-то такие тральщики выполнял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и были одними из лучших в своем классе. Сегодня это просто груды металла и наша задача – очистить от них акватории,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чика.

В этом году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транс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 объемы работ по утилизации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Если, в 2022 году из островных акваторий было удалено 4 объекта, т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 уже 15.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утилизировать останки 26 судов.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ются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Напомним, утилизация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стран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33명 가족상봉 위해 출국

「사할린한인 가족상봉 지원사업」 실시

L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3년 만에 러시아 현지 가족 상봉 재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한적)는 L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33명이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 24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한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에 따라,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1세대)와 그 동반가족(2세대)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적은 2001년부터 영주귀국자들과 러

시아 현지 가족의 재산 문제 해소를 위해 총 8,577명의 역방문을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중단되었다. 한적은 대상자들의 현지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을 고려하여 하늘길 대신 배편을 통한 바닷길로 상봉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사업은 L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영주귀국 동포 2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 33명(1세 10명, 2세 23명)이 러시아 현지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날 출국한 사할린동포 1세 정길자 어르신(여 81세, 안산 거주)은 "6년 만에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사할린동포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대한적십자사와 LG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적은 의료인력을 포함한 직원 4명을 현지 인솔자로 파견하여, 강원도 동해항에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33명의 출국과 현지 상봉을 지원하며, 가족 상봉을 마치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비온드포스트, 2023.10.26】



전 세계 재외동포 181개국 708만1,510명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발표

2년 전 대비 3.3% 감소...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중국 내 재외동포 수 크게 줄어

재외동포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해 집계한 '2023 재외동포현황'을 10월 19일 발표했다.

재외동포현황은 외교부가 매 홀수년도마다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해 발표해 온 것으로 올해는 재외동포청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현황은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자료 ▲동포단체 자료 등을 활용해 산출한 추산·추정치이다.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총 181개국에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말 기준 동포 규모(732만5,143명)와 비교할 때 3.3%(24만3,633명)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46만7,969명, 외국국적동포는 461만3,541명으로, 직전 통계 대비 각각 1.73%(4만3,552명), 4.15%(20만81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재외동포의 90%가 분포한 동북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재외동포 수가 감소

※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23,011	1,293,842	151,116	2,467,969	4,613,541
증감(명)	4,966	-28,291	-20,227	-43,552	-200,081
증감률(%)	0.48	-2.13	-11.80	-1.73	-4.15

'2023 재외동포현황' 중 거주자격별 현황 (자료 재외동포청)

※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중동
총계(명)	2,911,845	520,490	2,862,781	102,751	654,249	29,394
(백분율(%))	(41.12)	(7.35)	(40.43)	(1.45)	(9.24)	(0.42)
증감(명)	-257,442	31,070	-8,360	12,462	-22,907	1,544
증감률(%)	-8.12	6.35	-0.29	13.80	-3.38	5.54

'2023 재외동포현황' 중 지역별 현황 (자료 재외동포청)

한 가운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중국 내 재외동포 수가 크게 줄어 동북아 지역의 감소 폭이 8.12%(25만7,442명)로 가장 컸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 재외동포 수가 3.38%(2만2,907명) 줄어 그 다음으로 많

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 지역의 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10.24%(24만695명) 감소한 것이 총 감소 수치에서 98.8%를 차지했다.

반면, 그밖에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호전 등으로 재외동포 수가 회복됐다. 남아

태 지역의 경우 재외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6.35%(3만1,070명) 증가했고, 중남미(13.80%, 1만2,462명), 아·중동(5.54%, 1,544명) 지역에서도 재외동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1만5,419명), 중국(210만9,727명), 일본(80만2,118명), 캐나다(24만7,362명), 베트남(17만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4,490명), 호주(15만9,771명), 러시아(12만4,811명), 카자흐스탄(12만1,130명), 독일(4만9,683명)로 파악됐다.

상위 10개국은 2년 전 조사 결과와 동일하나, 국가들 순위는 변동이 있었다. 지난 조사에서 8위였던 베트남의 재외동포 수가 13.93%(21,792명) 늘어, 이번 조사에서는 세 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경우 4만3,715명 감소해 6위에서 8위로 두 단계 하락했다.

'2023 재외동포현황'은 책자로 발간돼 주요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보훈부·수출입은행,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어학습 지원 나서

10월 27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위한 교육 기기와 도서 전달식 개최 온·오프 교육 과정 지원 등도 추진... 한국 거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28가구 전체 지원

국가보훈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어린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학습 등을 위해 노트북과 한글 프로그램 등 교육 기기와 관련 도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강요창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상임이사, 김재화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사회·투명(ESG)경영부 부장,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김경천 장군(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박노순 지사(2008년, 건국포장)의 후손과 어린 자녀들도 함께했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독립 영웅의 후손

들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독립 영웅 후손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후손들이 '한국어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독립 영웅의 후손들 전체 대상 가구인 28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전달식에서 정보문화기술(ICT) 기기인 노트북을 비롯한 한글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지피티(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 등을 지원했다.

또한 이날 전달식을 계기로 전국 은행연합회 관련뱅크의 누리집 등을 통해 독립 영웅의 후손들에 대한 교육 기반 조성 홍보사업 '모국으로 돌아온 독립 영웅의 후손(히어로즈 주니어)'의 든든한 후원·지도자(멘토)

가 되어주세요!'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 영웅의 후손들(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협약기관인 청소년 그루터기재단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성북구의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은 지원받은 학습기기를 통해 관련 누리집에 접속,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번 전달식은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의 어린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국가보훈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어린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학습 등을 위해 노트북과 한글 프로그램 등 교육 기기와 관련 도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국가보훈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참가자 각자는 경연에 5개 -10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스케치, 데생, 회화, 습작(회화, 데생), 구성, 건물 디자인, 디자인 기획, 다양한 기법의 독창적인 작품(연필, 잉크, 포스터 물감,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파스텔, 세피아 연필 등 이용)이어야 한다.

2차 경연은 11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이 경연은 유라시아 미술연맹이 '최고들의 활동' 전국 사회-국가적 유·청소년 운동의 지원으로 주최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с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Юный талант Росси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8 лет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конкурсе «Юный талант Росси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2 но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о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можно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рисунок, живопись и архитектура (композиция). Творческое состяза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четыр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9-11 лет, 12-13 лет, 14-15 лет и 16-18 лет.

Один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одать на конкурс от 5 до 10 работ. Это могут быть наброски, зарисовки, рисунки, этюды (живописные и скульптурные), композиции или эскиз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и дизайн проекты, выполненн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любой технике (графитный карандаш, тушь, гуашь, акварель, темпера, масло, сангина, сепия и др.).

Второ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с 23 по 26 но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ет Евразий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Союз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나는 할 수 있다> 전국 포럼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11월 7일(화)부터 11일(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전 러시아 포럼 <나는 할 수 있다>가 개최된다. 이에 참전병의 재활과 이들의 가족 지원을 시행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들 150여 명이 모인다. 포럼은 모범적인 실제 사례를 수집, 분석, 체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 자료들은 '도보로.우니베르시테트' 플랫폼에서 온라인 교육과정과 방법론적 상담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전용사들의 재활 및 사회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5일간 열리는 포럼을 통해 초청된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들의 대표들은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한 일련의 전략 세션과 원탁모임, 토론을 진행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Я Могу»

С 7 по 11 ноября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рум «Я Могу». На нем соберутся более 1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изнеса, реализующих практики поддержк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Форум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сбора, анализа,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и тиражирования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создания метод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онлайн-курса на платформе Добро.Университ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ы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ветеранов является сейчас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дл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а протяжении 5 дней коман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месте с приглашенными экспертами проведет ряд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ессий,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и дискуссий, посвященных рабо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членами их семей.

쿠릴열도의 글램핑장, 러시아의 겨울 휴가를 위한 장소 상위권에 들다'

쿠나쉬르 섬에 위치한 글램핑장이 '국민적 우선권' 자율적 비영리단체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진행하는 '스콜코 집, 스콜코 집 (혹독한 겨울, 굉장한 겨울)' 기획의 일환으로 <겨울 휴가를 위한 최우수 글램핑장> 목록에 들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동형 지붕의 레스토랑과 파노라마로 세워진 창문이 있는 아늑한 집, 요리 셰프가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식사, 흥미로운 여행과 관광을 높이 평가했다.

겨울철 휴가를 보내는 방안 준비들이 '호텔 관광과 산업' 국가기획의 러시아 트러블(Russia.Travel) 포털 사이트에 수집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기획은 2030년까지 러시아의 관광객 수를 연간 1억4천만 명으로 확대시키고 관광산업을 배가시킴으로써 국내 경제성장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Глэмпинг на Курилах включили в ТОП мест для зимнего отдыха в России

Глэмпинг,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вошел в перечень «Лучших глэмпингов для зимнего отдых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колько зим, сколько зим!» от АНО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иоритеты» и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перты оценили комфортный сферический ресторан, уютные домики с панорамными окнами, обеды и ужины от шеф-повара, интересные поездки и экскурсии.

Готовые варианты досуга в зимний сезон собраны на портале Russia.Travel нац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Нац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едполагает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России к 2030 году до 140 млн в год,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стране за счет мультипликативност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